

## '꽃은 기어이 핀다'...미술관에 부는 봄바람

16 February, 2016 | 김자영 기자

page 1 of 2

국제갤러리 장 미셸 오토니엘

유리구슬 엮은 연꽃으로 한국미 표현



봄을 재촉하듯 꽃을 테마로 한 전시가 줄을 잇고 있다. 프랑스 조각가 장 미셸 오토니엘의 '검은 연꽃' 전에 나온 대표작 '검은 연꽃'(사진=국제갤러리).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어느덧 봄이 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래도 기어이 봄은 오고 꽃은 핀다. 미술관과 화랑가에도 봄맞이하듯 꽃전시가 열리거나 예정돼 있다. 꽃봉오리가 맺히고 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조금 지루해졌다면 전시장 꽃나들이를 가보는 건 어떨까. 구슬조각으로 연꽃을 표현한 프랑스 조각가의 전시부터 꽃과 돌을 어울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회화전, 여기에 프랑스 유명 일러스트작가의 꽃을 소재로 한 경쾌한 전시 등 봄맞이가 풍성하다.

◇이처럼 독특한 연꽃이 있을까

프랑스 조각가 장 미셸 오토니엘의 독특한 '꽃'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다. 5년 만에 한국에서 전시를 여는 오토니엘은 꽃을 주제로 유리조각, 설치작품, 회화 등 신작 10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검정·파랑·보라 등 '유별난' 색을 가진 다양한 크기의 구슬을 연결해 꽃의 숨은 의미와 상징을 매력적으로 표현했다. 작가에게 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매개체다.

대표작은 전시제목이기도 한 '검은 연꽃'. 작가는 연꽃이 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연꽃이라는 생각했다. 하지만 화사한 색깔이 아니다. 검정이다. 반어적인 의미로 검정색을 사용했는데 이는 연꽃의 중의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기도 하다. 프랑스 낭만주의 시인 보들레르와 랭보의 시에서도

영감을 얻었다.

그동안 해온 구슬조각의 연장선에 있는 조각이지만 재료는 유리 대신 산화처리한 알루미늄을 썼다. 덕분에 한층 무게감이 느껴진다. 작가가 처음 선보이는 회화도 볼 수 있다. 금박을 입힌 캔버스 위에 먹을 연상시키는 석판화 잉크로 여러 겹 채색해 동양의미를 한껏 살렸다.

작가는 지난해 베르사이유 궁전의 정원분수 작업에 참여해 조각작품 '아름다운 춤'을 영구적으로 설치했다. 파리의 풍피두 센터, 미국 뉴욕현대미술관(모마) 등도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전시는 3월 27일까지다. 02-3210-9885.